

광주교대부설초 오케스트라 환순서 '음악캠프'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40여명은 최근 2박 3일간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여름 음악캠프'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캠프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팀별 놀이와 캠프연주회 등으로 이뤄졌으며, '내가 생각하는 차이란?'과 '차이가 감사로 오기까지'를 주제로 한 이야기 마당과 감사 편지 쓰기 행사도 곁들여졌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100여명을 초청해 독주와 합주 등 '한여름 밤의 문화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해남군지부, 郡에 폐비닐 수거보상금 전달



NH농협 해남군지부(지부장 박성범·왼쪽 네번째)는 최근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 사업' 보상비 5000만원을 해남군에 전달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9130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했다. <해남군 제공>

조선이공대, 교직원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는 최근 충남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교직원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입생모집 대응 방안 및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조선이공대 제공>

초당대 재직 교수 4명, 발전기금 1억여원 기탁



초당대학교(총장 박중구) 간호학과 고문희·호텔조리학과 정해옥·항공운항학과 유종광·항공정비학과 조영송 교수 등 재직 교원 4명이 지난 26일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발전기금 총 1억 400만원을 기탁했다. <초당대 제공>

폐원 위기 병원 살려 16년 '청산도 슈바이처'

「성천상」 수상 완도 '푸른미중앙의원' 이강안 원장

의사들 근무 꺼리는 섬마을 왕진 등 16만 건 외래진료 불우이웃 후원 등 일상이 선형 병상의 KIA 코치 돕기도 꾸준

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목묵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한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매년 서울에서 진행되던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다. 멀리 청산도에서 걸음을 해야 하는 이 원장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찾아가는 시상식'이다.

196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원장은 잠실병원 부원장, 해민병원 원장을 거쳐 1993년 서울 화곡동에 이강안 의원을 개원했다. 지금은 청산도와 인근 섬마을의 유일한 의사로 지내고 있다. 벌써 16번째 이어지는 이 원장의 헌신이다. 지난 2004년 푸른미중앙의원이 근무의사가 없어 폐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구도 없는 곳을 찾은 게 시작이었다. 이 원장은 "친구가 폐원 위기의 병원이 있다면 봉사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니 가서 봉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2년 정도 봉사할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며 웃었다. 2003년 병원이 설립됐지만 1년 동안 의사가 내 차레나 바퀴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했다. 또 고령 환자가 많아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고, 당시에는 육지로 가는 배는 하루 1번 밖에 없었다. 이 원장은 "의사를 구해도 오지를 않는다. 벽지이고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있다. 후임도 안 구해지고 주민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다"며 청산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꾸준히 선형활동도 펼치고 있다. 살림

이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고기를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주고 경로잔치를 열기도 한다. 열렬한 KIA 타이거즈 팬인 이 원장은 병상에 있는 차명과 코치를 돕기 위한 성금도 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광주일보 기사를 보고 차 코치의 소식을 접한 그는 매년 겨울 도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봉사의 삶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지만 이 원장의 광주 나들이는 짧다.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다. 이 원장은 오전 7시 30분 진료로 시작해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를 돌본다. 배편으로 작은 섬으로 왕진도 다니는 등 지난 16년간 수행한 외래진료 건수만 48만 건. 늦은 밤에도 환자들이 그의 집을 찾는다. 이 원장은 시상식 날에도 오후 1시 바로 청산도를 나와 광주로 이동한 뒤 행사가 끝나고 완도로 갈 계획이다. 그리고 28일 오전 6시 30분 배로 다시 청산도로 돌아가게 된다. 이 원장은 "아침에 출근하면 30명 정도의 환자가 기다린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많이 베풀고 있다. 봉사의 뿌리는 기쁨이다. 삶이 아주 재미있다. 건강하게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해남소방서 대원 3명 전남 첫 '브레인 세이버'

뇌질환 환자 신속 조치...정해강 소방장·강혁 소방교·이재경 소방사

해남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전남 최초 '브레인 세이버' (Brain Saver)에 선정됐다. 「사진」 주인공은 해남소방서 해남안전센터장 정해강(소방장), 강혁 소방교, 이재경 소방사 등 3명의 구급대원이다. 브레인 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한 뒤 빠른 이송 조치를 통해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환자의 퇴원 시 또는 증상 발생 3개월 후 독립적인 생활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심의위원회 열어 세이버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등 선정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이들은 지난 26일 해남을 매장에서 뇌질환 증상을 보이던 환자(남·48)를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와 전문적인 치료 가능한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철 예방홍보팀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



지도 중요하지만, 평소 시민들이 유사시 응급처치를 잘해주면 소생률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광주대 임형택 교수 세 번째 시집 '우리 함께 희망 아리랑' 출간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임형택 교수가 시집 '우리 함께 희망 아리랑' (청해사)을 출간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상담활동을 통해 '교육상담시(詩)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임 교수는 이번 시집에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동시에 대동세상을 향한 평화와 진리의 숨결이 담긴 시 150여편을 담았다. 모든 포연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임 교수는 첫 번째 시집인 '슬픈 낙관주의자의 희망의 노래'와 두 번째 시집인 '온전한 삶의 지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집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최병오 형지 회장에 名博

전남대학교는 26일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전남대는 최 회장이 국민 의생활 개선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샀다. 최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전주대, 중앙대, 숭실대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강연하는 교수 CEO'로도 불린다. 창업 48주년을 맞은 패션그룹 형지는 에스콰이어, 예작 등 토종 브랜드를 인수한 바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美 슈퍼볼 챔피언 "트럼프 안 만나"

양측 "정치와는 무관" 올해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년 NFL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승리한 팀은 전통적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과 축하 행사를 해 왔으나, 올해는 백악관과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가 방문 일자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다음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이 갈수록 빽빽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방문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뉴잉글랜드는 올해 통산 6번째 NFL 우승을 차지했으며, 과거 5차례 백악관 방문은 모두 4~5월에 이뤄졌다.

백악관과 뉴잉글랜드는 방문 일자가 합의되지 않은 것이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뉴잉글랜드 소속 선수들은 2017년 NFL 우승 후 백악관에 초청받았을 때도 20여명이 불참한 바 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포츠계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시 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쿼터백이었던 콜린 캐퍼니 등이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공격력 남용에 항의해 미국 국기가 울려 퍼질 때 무릎 꿇는 시위를 벌인 것을 애국심 부족이라고 비난하면서 해당 선수들을 퇴출하라고 종용, 한동안 스포츠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작년에는 슈퍼볼 우승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판선수들이 잇달아 불참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하루 전 초청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호족

- ▲최선옥·성현순씨 장남 민영(광주일보 출판부)군, 고(故)김유현·박향화씨의 장녀 정양=31일(토) 낮 12시 광주시 북구 각하동 까사리체육당컨벤션 3층 안젤로홀.
- ▲조초기(전 조선대 입학부처장)·김광숙(동아여중 교사)씨 장남 철진군, 김성호·한인숙씨 장녀 미수양·광주 피로연 31일(토)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위더스웨딩홀, 결혼식 9월 21일(토) 오후 2시 서술시 송파구 문정동 더컨벤션 송파관정 13층 아모르홀.

알림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 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차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생명=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용용품무료지원, 장애인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적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역능력개발원 드론조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 =만 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061-320-7024.
- ▲사회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

- 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생회)=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임옥남씨 별세, 이동주·동순·동열·정렬·순화·순미·순영씨 모친상, 김철수·안성만·김종민(광주매일신문 사회부장)씨 장모상=발인 27일(화)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국민장례문화원 201호실 062-606-4000.
- ▲최혁씨 별세, 민철(LG유플러스 부장)·미경(함평군보건소 주무관)·민석(무등일보 사회부 부장)씨 부친상=발인 28일(수) 오전 10시 함평군 함평장례식장 061-324-4440.